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DAIL COMMUNITY

다일공동체

2014.05+06



꿈을 담아 희망을 나눕니다



아픔 속에서도 나눔은 지속적으로...

지난 4월 16일 진도 앞 바다에 침몰한 세월호 사건으로 인하여 온 나라가 눈물과 비탄 속으로 빠져 들었습니다. 저 또한 흐르는 눈물을 감추려 애써 보지만 마음속에서 부터 터져 나오는 소리 없는 울음은 날마다 저를 무릎 꿇게 하고 두 손을 모아 울며 울며 기도하게 합니다.

아이들을 대피시키기 전에 자신이 먼저 배를 버리고 도망갔던 선장을 보면서 수치심과 함께 ‘나는 올바른 리더인가?’를 많은 시간 되묻고 되물었습니다. 세월호처럼 침몰해 가는 한국 기독교를 구하기 위해 ‘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질문하고 질문해야 했습니다. 나부터 재를 뒤집어 써야 할 죄인이며, 나부터 아이들 앞에 용서를 빌어야 할 죄인 중에 과수임을 고백하면서 얼마나 처절하게 울부짖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후원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십시일반 나눔과 섬김을 통해 밥퍼가 700만 그릇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다일공동체는 이 기쁨의 날, 소외된 이웃과 그동안 묵묵히 꾸준히 봉사해 오신 단체들과 회원들을 모시고 700만 돌파 나눔 잔치를 5월2일 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온 국민이 함께 아파하는 이 시기에 잔치를 열 수 없다는 생각에 오병이어의 날 행사를 7월7일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세월호에 갇혀 있는 어린 영혼들과 이들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담보로 물속에 뛰어드는 구조대원들의 모습이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지만 모두 모두 힘내서 이 슬픔과 절망을 하루속히 딛고 다시 한 번 일어나기로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사랑의 나눔과 섬김으로, 고통과 슬픔 많은 이 세상을 더욱 더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애 뜻과 정성을 모으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7월 7일에 더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밥퍼 마당에서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5월 2일부터 예정대로 캄보디아 다일공동체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일공동체와 저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기에 아픔의 눈물을 잠시 씻고 캄보디아로 떠나려 합니다. 가서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듣고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결단하고 오겠습니다. 캄보디아 빈민촌에서 울고 있는 아이들의 눈물을 한번이라도 더 닦아주고 오겠습니다. 넘어진 아이 한명이라도 더 일으켜 세워주고 오겠습니다. 배고파우는 아이에게 밥 한 그릇이라도 더 나누고 돌아오겠습니다. 아픔의 시기라 할지라도 빈민촌 봉사활동까지 미루거나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세월호의 아픔을 이기는 길은 더욱 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 때문에 받은 상처는 더욱 사랑함으로 치유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후원회원 여러분!

온 백성들이 아픔에 빠져있는 시기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우리들에게 맡겨 주신 나눔의 사역은 멈추지 말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웃과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아름다운 나눔의 실천을 부디 연기하거나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이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임을 우리의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후원회원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아픈 이 시기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히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함께 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2014년 5월에

작은형제 **침** 권도 목사 올림

C O N T E N T S

2 0 1 4 . 0 5 + 0 6



Cover Story 카드만두의 뽕튀기

네팔다일공동체에서는 500여명이 모이는 토요일의 '어린이 공동예배'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센터 앞마당에서는 뽕튀기 기계가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꿀 바르드 총무가 "뽕이요!"를 크게 외치고 '뽕'하고 소리가 터지면 동네 아이들이 쩍샤게 몰려들며 한 줍씩 들고 뛰는 모습이 꼭 우리 어린이들과 너무도 많이 닮았습니다. 손으로 옥수수를 넣고 빙글빙글 돌려서 튀겨낸 강냉이 맛, 이 맛은 정말 포카라의 뽕만콤이나 맛있고 너무도 흥미진진합니다.

- 02 네팔다일공동체 - 제7차 네팔비전트립 및 포카라 뽕퍼 개원식
- 12 밥퍼나눔운동본부 - 행복 공감 희망의 온기 나누다
- 17 중국다일공동체 - I LOVE CAMBODIA
- 20 중국다일공동체 - 이끄시는 대로 걸어갑니다.
- 22 캄보디아다일공동체 - 프놈펜 밥퍼 수해복구 프로젝트
- 24 필리핀다일공동체 - 유치원 후원천사가 되어주세요
- 26 베트남다일공동체 - 자랑스러운 어머니
- 28 우간다다일공동체 - 어서 와서 도와달라고
- 34 다일작은천국 - 내생에 마지막 여행
- 36 노란 리본에 마음을 담아
- 38 영혼을 위로해 주는 시
- 40 회계감사 및 2013년 결산 개요
- 42 밥퍼는 000이다
- 43 나는 행복한 자원봉사자
- 44 나눔을 실천해 주신 신규 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46 후원안내

앞으로 격월로 소식지가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후원 문의 및 신청 02-2212-8004 www.dail.org

발행인 · 최일도 편집장 · 김연수 편집위원 · 김도한, 김소희, 이가영, 최가람, Byeol Ellie Choi
 번역 · 김여진, 박운정, 이예형 감수 · Byron Chun 사진 · 김도한 디자인 · 제이앤제이컴퍼니
 발행일 · 2014년 5+6월 발행처 ·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시립대로 57(서울시 동대문구 전농1동 497-77번지)
 전화 · 02-2212-8004, 2213-8004 팩스 · 02-2243-8005

제7차 네팔비전트립 및 포카라빵퍼 개원식

The 7th Vision Trip and the Opening Ceremony in Pokhara, Nepal

글·네팔다일공동체 _박종원 원장 babper_dail@dail.org Nepal Dail Community _ By Jong Won Park

세계에 8,000미터 이상 되는 높은 산이 모두 1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8개가 네팔의 히말라야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설봉들이 수없이 펼쳐지는 네팔에서도 관광객들이 가장 많은 곳은 포카라입니다.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온갖 먼지와 매연으로 가득 찬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와는 달리 포카라의 페와호수에 비친 히말라야 설봉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어느덧 시가 절로 나옵니다.

There are 14 mountains with heights of over 8,000 metres above sea level, 8 of which are located in Nepal. Pokhara is the most popular place for the tourist rather than Kathmandu in Nepal, and when we see Himalaya through the Fewa Lake, we feel like writing lovely poem.



1 배식을 하고있는 주선애 교수(장로신학대학교, 대학원 명예교수) 2 왼쪽부터 황혜정, 장선혜, 이연순 봉사자들.

네팔다일공동체는 지난 2008년 1월 11일 카트만두 머느하르 빈민촌에 세워진 이래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8시에 약 400여명의 빈민촌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나누고 있습니다. 올해로 7년째를 맞이한 밥퍼센터에서 매일 밥을 먹은 빈민촌 아이들은 영육간에 엄청나게 폭풍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거리에서 구걸하는 아이들을 위해 설립한 네팔 최초의 대안학교 '다일호프스쿨'을 통하여 평생 구걸만 하던 아이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힌두교의 나라 네팔을 변화시키고, 네팔을 넘어 인도까지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길 간절히 두 손을 모읍니다. 네팔에서는 대학을 나와도 직업을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인구 3천 3백만명 가운데 6백만명 이상이 해외에 노동자로 나가서 외화를 벌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빈민촌 주민들의 사정은 더욱 안타깝습니다. 가사도우미, 노동, 쓰레기줍기 등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빈민촌 주민들에게 다일여성직업기술학교를 통해 손뜨개, 미싱교실등을 열어 실제적인 주민들의 가정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There are 14 mountains with heights of over 8,000 meters above sea level, 8 of which are located in Nepal. Pokhara is the most popular place for tourists rather than Kathmandu in Nepal, and when we see the Himalayas through the FewaLake, we feel like writing a lovely poem.

Nepal Dail Community has served food for about 400 poor children every Mon to Fri at 8:00 since Jan 11th, 2008 in Manohara slum area. Now it has been 7 years and children are growing up greatly in a spiritual way and physically as well. Moreover, we are giving hope for a future to the children those who used to beg on the street through Hope School, which is the first alternative school in Nepal. We hope that our children would become servants of GOD so that they could change Nepal, even India in the future.

It is really hard to seek a job here in Nepal, even the graduated students and among the 33,000,000 people in Nepal, more than 6,000,000 people go abroad to earn money. For this reason, the poor can't help but survive by a harder situation such as labor, picking garbage. From this view, we are



개원식에 참석한 사하라 초등학교 교장을 비롯한 포카라 시장, 국회의원, 교육위원들의 모습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던 네팔다일공동체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 네팔 제2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포카라에 포카라다일공동체를 지난 4월 8일 '네팔의 날'에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두 팔로는 도저히 감당 할 수 없어서 네팔(?)이라는 이 나라에 16번째 해외 다일분원이 설립되었습니다.

특별히 7차에 걸친 네팔비전트립의 열매로 포카라다일공동체와 포카라빵퍼가 개원하게 되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7차 네팔을 향한 아름다운 동행 다일비전트립팀으로 참여하신 최일도 목사님과 현순옥 장로님, 주선애 교수님, 김도한님, 김소형님, 김혜란님, 박완수님, 이연순님, 이숙자님, 장선혜님, 정진영님, 황혜정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91세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제자, 최일도 목사님과 함께 동행하신 주선애 교수님과 날마다 다일의 사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다일의 기도의 어머니 현순옥 장로님께서 동행하시어 얼마나 뜻깊고 행복한 비전트립이었는데도 모릅니다.

네팔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포카라에도 공항 바로 옆에 포카라 최대의 빈민촌이 있습니다. 빈민촌 아이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사하

라 초등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너무나 가난해서 학생들에게 전기와 물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었고, 영어선생님이 없어서 다른 학교 학생들처럼 영어를 제대로 배울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점심 때는 반 이상의 학생들이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겨우 물로 배를 채우는 형편이었습니다. 형편이 이렇다보니 포카라다일빵퍼공장인 '오병이어의 집'을 개원한 4월 8일은 포카라 빈민촌의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개원식이 시작되기 전부터 운동장을 가득 채운 빈민촌 주민들과 아이들의 상기된 표정에서 포카라빵퍼의 희망을 발견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요한복음 6:41)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을 이 포카라다일빵퍼 공장인 '오병이어의 집'을 통해 빈민촌 아이들과 주민들에게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빵과 복음을 들고 열심히 사역할 포카라다일공동체를 위해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개원식이 끝나고 첫 번째 빵퍼가 있었습니다. 16번째 분원을 오픈하는 최일도 목사님께서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빵을 나눌 때 세상을 다 얻은 것같은 만족한 웃음을 짓는 아이들을 보며 모두가 큰 기쁨의 웃음을 짓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빵퍼 공장장 리일, 조홍광선교사 부부, 아람형제와 최일도 목사가 소보로 빵을 굽고 있다.

helping them in a practical and economical way through sewing class for women at the vocational training center.

Eventually, we established Pokhara Dail Community on 8th April we called as 'Nepal's Day' in GOD's grace and this is our 16th Dail community in an overseas country. We are especially thankful for the 7th mission trip team in Nepal's helping hand : Rev. Choi Ildo, Elder Hyun Soonok, Prof. Jusunae, Mr. Kim Dohan, Ms. Kimsohyung, Ms. Kimhyeran, Ms. Parkwansu, Ms. Lee Yunsoon, Ms. Lee Sookja, Ms. Jang Sunhye, Ms. Jung Jinyoung, Ms. Hwang Hyejung. It was a really great and happy moment that we enjoyed our mission trip with Prof. Ju Sunae, who is 91 years old, joined with her student Rev. Choi Ildo, and Elder Hyun Soonok, who is a mother of prayer in Dail Community.

There is one of the biggest slum areas near the Airport and Sahara Primary school is the one school that mostly the poor can go. The school can't afford to provide electricity and water and students don't have the opportunity to learn

English because of a lack of English teachers. Moreover, more than half of all the students can only get some water at lunch time. Finally we could find hope during the opening ceremony for "the house of five fish and two loaves" in Pokhara BBANGFOR, on April 8th and many people and children came there before the beginning.

We will definitely spread Jesus: "for the bread of god is he which cometh down from heaven, and giveth life unto the world" (John 6:41), through "the house of five fish and two loaves". Please keep continuously praying for Pokhara Dail Community's work.

아이와 놀고 있는 장선혜님.



신기하게도 개원식에 참석한 사하라초등학교 교장을 비롯하여 포카라 시장, 국회의원,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의 성이 모두 '어디까리'인데 최 목사님에 이어 무릎을 꿇고 진지하게 빵을 나누는 그들을 보며 포카라빵퍼의 희망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카스트제도가 생활 속에 드리나는 네팔에서 최고 카스트인 그들이 다일공동체의 전통에 따라 무릎을 꿇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일공동체의 밥퍼와 빵퍼의 정신을 이해하는 것 같아 참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 무릎을 꿇고 섬기는 자세로 포카라 빈민촌을 섬길 포카라다일공동체 가족들(타루 지부장, 빵퍼공장장 리일, 조홍광 선교사 부부, 야곱 형제, 선우진주 간사)들을 응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루에 500여개의 빵을 만들기 위해 빵퍼후원천사도 필요합니다. 포카라 빈민촌의 빵퍼후원천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일복지재단과 네팔다일공동체로 연락주시면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데레이 던예뵈!!!

We held our first BBANGFOR ceremony and when Rev. Choi ildo gave bread to the children, they had a big smile and people all cried and smiled as well. Mayor of Pokhara city and Assemblyman, a chairman of education commission gave bread to the children on their knees nevertheless, they were the highest caste in Nepal, so we really appreciated that they could accept Dail Community's mind.

Please give encouragement and prayer for Pokhara Dail Community family (Director Tharu, factory supervisor Mr. Lee il, and his wife Johongkwang, Bro Jacob, Sis Sunwoo Jinju) and we're also looking for raising funds for providing 500 bread per day. Please contact Nepal Dail community or Seoul Dail Community for those who want to support us. Thank you so much.



The Opening Ceremony in Pokhara, Nepal

포카라 국회의원이 아이들에게 무릎을 꿇고 진지하게 빵을 나눠주고 있다.



아름다운 동행

글· 황혜정(영성수련 도우미, 미주다일공동체 이사)

- 반갑습니다(구실라기오)
- 감사합니다(단예뵈)
- 사랑합니다(마이아결쥬)
- 축복합니다(아시스디누운쳐)
- 아름다운 세상입니다(쑤다르썬짜르쳐)

최일도 목사님과 함께한 네팔비전트립팀 12명(한국에서 출발한)은 “네팔을 향한 아름다운 동행”을 4월 7일부터 11일까지 4박5일의 일정으로 네팔 포카라 “빵퍼 개원예배”를 드리고 카트만두 “다일공동체 밥퍼와 호프스쿨”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여행은 최목사님의 스승님이신 주선에 명예교수님(92세)과 최목사님의 어머니이시며 이 시대 기도의 어머니이신 현순옥 장로님(86세)께서 동행하셨기에 더욱 아름답고 보람된 여행이었습니다. 여섯 시간 여만에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다시 국내선 경비행기로 약 30여분 더 비행하면 아름다운 히말라야가 우뚝 자리 잡은 포카라에 도착했습니다. 포카라에서 입이 딱 벌어질 만큼 거대한 안나프르나의 펼쳐진 연봉들, 그 너머의 일몰과 일출을 넋을 잃고 바라보며 그 거대한 장관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솜씨에 저절로 찬미와 찬양이 울려지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제일 먼저 떠오르는 태양. 그 태양빛 머금은 마차푸차레를 통해 어둠속에서도 오늘의 태양은 어김없이 떠오르고 있었고 눈썹만 겨우 떴어 낸 초췌한 새벽의 얼굴들이었지만 황홀한 태양을

부끄럼 없이 맞이 하였다. 오랜 노력으로 “빵피”의 기록을 이룬 포카라 다일 공동체 개원예배를 감격과 감동으로 감사히 드리고 예정된 히말라야 트레킹을 무사히 마친후 우리팀은 카트만두에 도착했습니다.

포카라와는 사뭇 다르게 복잡하고 무질서하고 지저분한 카트만두이지만 보석처럼 빛나는 카트만두 아이들의 깊은 눈망울들이 그림고, 전심을 다해 전해 주는 축복송이 지금도 여전히 귀에 쟁쟁하게 들리는듯 했습니다. 아이들의 까르르 웃는 소리와 전혀 경계도 없이 매달려 맞이 하는 순진 무구한 모습들이 파노라마처럼 선명히 지나갔습니다.

카트만두 다일공동체 밥퍼!
그곳은 분명 이 땅의 천사들을 초대해 천국 잔치집이다. 아이들은 배불리 먹고, 춤추며 행복하게 웃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들속을 거닐며 웃고계십니다. 그리고 밤에는 어김없이 그들과 함께 찬 흙바닥에 몸을 누이시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네팔의 인구는 약 3천만인데 그들이 숭배하는 신은 3억8천개입니다. 너무도 열악하고 무질서한 도시의 외관에 한숨이 저절로 나오고 막막하기만 한 땅!

한치의 희망도 없을 것 같은 그 땅에서 ... 복잡한 마음은 아침마다 드러진 예배와 찬양과 말씀의 인도로 정리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 하나님의 뜻은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땅을 향하여 부르

짖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오히려 우리 각자에게 부어진 맑은 물은 하나된 맘과 한몸된 지체로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있었고 용서와 화해로 묶였던 것들이 풀려난 참 자유와 평안과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의 꿈과 소망을 선물로 받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 땅을 밟고,그 땅을 품고 그 땅에 집중하는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와 끊임없는 사랑이 네팔 땅을 새롭게 할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네팔을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르시고 보여주시며 듣게 하신 하나님의 참사랑을 전하고 섬기는 자 되기를 눈물로 결단케 하셨습니다. 꼭 그 땅에 복음이 전해져 예수의 피로 정결된 땅,, 복음으로 축복된 땅이 되어 새롭고 건강한 땅이 되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맑고 영롱한 눈동자와 투명한 빈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육받고 자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일 재목들이 될 것을 기도했습니다. 네팔의 희망은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일시적인 동정이나 연민이 아닌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지속적인 일로 주님의 뜻 이루어가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의 능력 많다 하신 말씀이 살아 있는 곳!

우리 갈 길 다 가도록 한맘과 한몸된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여 아름답게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허락하시고 베푸신 모든 일정과 일들과 만남의 은혜를 감사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나라 갈 때에 시름시름 앓다가 갈 것이 아니라 이렇게 봉사하다가 가고싶어요”

글· 현순옥(서울다일교회 장로)

안녕하세요! 올해 나이가 8학년 6반 현순옥입니다.

이번에 저는 아들 덕분에 네팔 비전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처음에는 네팔 비전트립을 가자는 아들의 말에 “아야 내 나이가 ..아이고 무슨 ”하고 거절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같이 가는 일행 중에 92살 된 어르신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용기를 내서 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네팔 비행기를 타고 기도했습니다.



주선애 교수(장로신학대학원 명예교수)와 최일도 목사, 현순옥 장로님이 아이들의 환영을 받으며 걸어가고 있다.

아이들이 봉사자들을 위해 찬양으로 환영하고, 봉사자들은 아이들을 향해 축복으로 화답하고 있다.





1 현순옥(서울다일교회 장로)님이 환하게 웃으며 아이들에게 배식 봉사를 하고 있다.
2 주선에 교수님과 현순옥 장로님이 아이를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다.

“주님 제가 비록 이렇게 건강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그곳에 가서 아이들에게 봉사할 때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기에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팔 땅에 도착해서 처음 보는 낯선 환경에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에 놀라웠고 우리를 환영해주는 현지 다일 가족들과 아이들을 보고 마음에 기쁨이 넘쳐 흐렸습니다.

봉사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연세에 이 곳까지 오셔서 봉사활동을 하십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늘나라 갈 때에 시름시름 앓다가 갈 것이 아니라 이렇게 봉사하다가 가고 싶어요”

“오늘은 이 곳, 내일은 저 곳에 주 복음을 전하며 사랑의 나눔을 갖다가 선교지에서 곧 바로 가면 너무 좋겠어요” “시름시름 앓다가 가는 것보다도 영광이지요...”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에게 주신 이 감동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모든 일정을 거뜬히 다 소화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한 마음 한 뜻되어 사랑의 실천을 하심으로 겸손하게 보상없이 대가없이 봉사하시는 우리 다일 비전트립 일동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운지요!

하나님 제가 하나의 밑알이 되어 나를 부르시는 곳마다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이번 비전트립으로 인해 제게 용기주시고 사랑 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여기에 보내준 아들과 며느리에게 고맙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만원의 행복



만원이면,,

해외에 있는 빈곤아동 30명에게
한끼 식사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사랑을 전해주세요

행복 공감, 희망의 온기 나누다

글·밥퍼나눔운동본부_이지현 부분부장 jinant1@dail.org



박승철 헤어 직원들이
배식 전 야채를 다듬고 있다.

국내 미용실 프랜차이즈 업계 1위 브랜드 박승철 헤어 스튜디오가 2014년 사회공헌 기업이 되기 위한 구체적 실천 방법으로 본부와 각 매장이 함께 참여하는 '사랑의 봉사단'을 제안했다. 박승철헤어스튜디오의 사랑의 봉사단은 밥퍼나눔운동본부와 함께하는 '글로벌 러브 프로젝트' 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러브 프로젝트'는 수년 전부터 해피바이러스 프로젝트, 사회적 편견없애기 프로젝트 등 사회환원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으며 이번 '러브 프로젝트' 캠페인은 더 많은 사람들의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는 참여프로그램으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준비됐다. '러브 프로젝트'는 박승철헤어스튜디오의 사회환원 및 봉사를 위한 캠페인이다.

Sharing the warmth of happiness, sympathy and hope

Dail Community _ By Ji Hyun Lee



박승철 헤어 윤이중 대표와 직원들이 시금치를 다듬고 있다.

The Park SeungChol Hair Studio ("PSC Hair Studio"), the No.1 franchise hair salon in the country, has suggested "Love Volunteership." Participated by the headquarter and franchises, PSC Hair Studio will join Global Love Project in cooperation with Babfor to be one of the corporations recognized for its social contribution in 2014.

A franchise of the PSC Hair Studio volunteered at Babfor this spring. The employees spared their valuable time to practice love and sharing with homeless people and elder people who live alone.



- ◀ 밥퍼나눔운동본부 이지현 부분부장과 최일도 목사, 그리고 윤이중 대표와 박승철 헤어스튜디오 직원이 감사패와 모금함을 전달하고 있다,
- ▶ 인터뷰 중인 윤이중 대표



Q. 박승철 헤어스튜디오는 어떤 계기로 사회 봉사활동과 후원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미용 업체로서 국내 250여개 지점을 가지고 있는 박승철 헤어는 윤이중 대표님의 캄보디아 방문을 통해 봉사와 사랑나눔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는 곳마다 원 달러 원 달러를 외치는 아이들을 보며 1000원의 돈이면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에 직원들의 사랑나눔을 제안하게 되었고, 이러한 나눔에 본부 직원들이 먼저 참여하고 더 나아가 각 지점의 점장님들에게 자발적인 후원을 이야기하니 처음 23개 지점의 점장님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작으로 '네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케 되리라'는 말씀처럼 점점 더 많은 자발적인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Q. 오늘 밥퍼에서 봉사하신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밥퍼는 진정한 사랑의 나눔의 터전이고 이러한 곳에 박승철 헤어가 함께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밥퍼 봉사를 와서 처음으로 우엉 다듬기를 해 보았다는 정장님의 말에 서로 웃으며 하나 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집에서 해보지 못한 일들인데도 워낙 손재주가 좋은 분들이니 바로 척척 해내는 모습을 보니 별 일 아닌데도 자랑스럽기도 하고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사실 본사와 가맹점이 있는 형태에서 본사는 어떻게든지 돈을 받아 내려하고 점장님들은 조금이라도 덜 보내려 하여 서로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밥퍼 나눔을 통해 서로가 하나되는 모습을 보이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을 보니 더욱 감사합니다.

밥퍼의 나눔은 오히려 박승철 헤어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해주었기에 사랑의 끈, 일치의 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Please introduce PSC Hair Studio and tell us what led you to support Babfor.

PSC Hair Studio is a hair salon with 250 franchises in the country. The decision to volunteer first came from our CEO Mr. Yi Joong Yoon's visit to Cambodia. Witnessing children shouting "1 dollar! 1 dollar!" everywhere he went, and realizing only 1,000 won would buy one meal for them, he asked the employees to share the love. Starting with our headquarter employees, now managers from 23 branches are participating.

With this humble start, more and more are volunteering, and I hope its future will be prosperous.

Q. How did you feel after the volunteer work?

Babfor is the very place to share love and PSC Hair Studio is grateful for the opportunity to work with Babfor. One manager said it was his first time to clean a burdock so we shared a laugh there, feeling closer together. Also it made me feel proud to see them excelling at what they have never done before, as they are quite good with their hands.

Granted that there are occasions where we do not get along very well under the current system where the headquarter is trying to get as much money as possible from franchises and franchises is resisting to this, it is so great to see we feel united by joining the Babfor activities. Babfor is a band of love and unity as it has helped to hold PSC Hair Studio as one.

Q. 앞으로 박승철 헤어가 말하는 나눔 실천이란?

나눔은 실천입니다. 한 번 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작은 것이라도 참여하고 실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세 가지의 나눔실천을 시작하였습니다.

첫째, 박승철 헤어의 직원들은 1000원 이상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분량만큼 기부금 나눔을 실천합니다.

둘째, 정기적으로 밥퍼나눔운동본부를 찾아가서 꾸준히 봉사 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만 이러한 나눔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으로 오신분들에게도 이러한 나눔의 기회를 드리려 합니다. 적극적으로 밥퍼를 홍보하고 나눔의 모금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앞머리 컷 비용을 받지 않고 1000을 기부하면 무료로 헤어 컷을 해드리는 운동을 지점별로 확장시키려 합니다.

나눔은 기적이고 나눔은 사랑입니다.

박승철 헤어의 글로벌 러브 프로젝트가 더욱 더 확산되어 해외에 있는 밥퍼에서도 아이들에게 따스한 밥을 사랑의 빵을 나누며, 이 아이들에게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꿈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넘어진 이들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부어주고 절망으로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꿈을 나누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Q. What is your future plan for sharing?

Sharing is taking action; and you know this only by doing so. It is crucial that you start, even with little things. Hence we started three things:

First, all PSC Hair Studio employees can volunteer to donate money of 1,000 won or more.

Second, PSC Hair Studio will continue to volunteer at Babfor regularly.

Third, PSC Hair Studio will provide our customers the opportunity to join the work of sharing. We will give a free bang haircut for customers who donate 1,000 won to Babfor so that people will promote the campaign and participate more.

Sharing is miracle and sharing is love. I hope that our Global Love Project will grow to reach the children overseas who live from the rice and bread Babfor brings to them, and hope that Babfor not only brings food, but also opens door to their dreams. So that hope will be shared among those who are in despair and those who see no future.

I Love Cambodia!

글·중국다일공동체 _한해연
China Dail Community _ By Hae Yeoun Han

안녕하세요. 중국다일공동체 한해연 입니다. 캄보디아다일공동체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 반갑고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13살 때 가족을 잃고 여동생과 같이 삶에 대한 희망을 잃고 떠돌아 다니다가 가족의 빈자리를 채워 줄 중국다일공동체를 만났습니다. 다일공동체를 통해 만난 새로운 가족들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저를 도와주신 많은 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세상을 온전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으니까요.

Hello, this is Han, Haeyeoun from China Dail Community. I am so grateful that I could send greetings to Cambodia Dail Community. I lost my family and wandered when I was 13, but I met the China Dail Community who became a family to me. The new family I met through the Dail Community is the best gift God has given me. I got to know the love of God and have a healthy world view through those who helped me.

제가 고등학교 갓 입학하고 나서 사고로 인해 다리를 크게 다쳤을 때 불구가 되었다는 생각에 삶을 원망하고 미래에 대해 희망을 잃었던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 속에서 다시 빛을 보게 한 다일영성생활수련에서 받은 가르침은 진정한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였고 저의 삶에 대한 새로운 목적을 세워주었습니다.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상해 한국인회사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안정된 회사생활을 하던 중 캄보디아의 굶주린 아이들에 대해 듣게 되면서 내가 받았던 사랑을 그 아이들에게 나누고 싶은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이번에 회사 사장님의 배려로 3개월간의 휴가를 얻게 되었고 캄보디아 봉사활동을 오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다일공동체에 처음 방문했을 때 밥을 먹기 위해 줄을 서있는 빈민촌 아이들과의 만남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루한끼로 살아가는 아이들, 밥을 먹기 위해 1시간을 걸어 왔다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염없는 눈물이 흘러 내렸습니다. 생각보다도 빈민촌아이들의 상황은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처음의 설렘보다는 아이들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만나면서 두려움은 눈녹듯 사라졌습니다.

처음 보는 언니라고 꽃을 꺾어서 수줍게 인사를 건네주는 아이들, 하이파이브를 하려고 손을 내미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들에게 필요한 따뜻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꿈과 희망을 심어 주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신 사랑을 이젠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작게나마 나눌 수 있게 되어 하루하루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의 삶에 일어난 변화들이 이 아이들한테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캄보디아에서 저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이곳에서 주어진 기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주님 섬기듯 아이들을 섬기겠습니다. 사랑합니다.



1, 2 한해연 자매가 캄보디아 비전센터에서 벽화를 그리고 있다.

There was a time I felt bitter against my life and future because I became a disabled by an accident I faced when I just entered high school.

The teaching of the Dail Spiritual Life Training led me to the true love of my life, my heavenly father, and made me build a new goal in life.

After graduating a university by the support of my mentors, I began my career at a Korea oriented company in Shanghai. My ardent hope to help children who are in need rose while I was in a stable life, at the time, I really wanted to share the love I got from others with the children.

With the understanding of the president of the company I could take three months off from work and come to the Cambodia Dail Community for voluntary activities.

It was rather a shock for me when I first came to Cambodia Dail Community and saw poor village children who were in a queue waiting for food.

Endless tears were run on my face after hearing a story of children who walk one hour to come here for one meal. It was more than I thought it would be.

I was expecting something different at first, but soon I was filled with doubt whether I could ever do something for them. My doubt though soon disappeared when meeting with the children.

When seeing a child who gave me a piece of flower and hi-five with warm greetings, I realized I was called to show them care and love.

I am day by day thankful that I now can share love with others when I was the one who received the unfailing love of God. I hope that the changes that came into my life would also happen to the children with the love of Jesus Christ.

In the time I have been given here, I will be a servant maid for the children as I serve Jesus expecting wonderful things that God will achieve through me. I love you.

이끄시는 대로 걸어갑니다

글·중국다일공동체_이희준 부원장 bom@dail.org

중국 다일어린이집(고아원)에는 보통 어린아이들이 오기 마련인데... 최준호는 중학교 1학년에 다일어린이집에 처음 왔습니다. 어릴적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헤어진 후 고모와 함께 살았었는데 고모가 재가를 하시며 준호까지는 데려 갈 수가 없어 고아원에 오게 된 것입니다. 사춘기가 시작 될 무렵이라 새 환경에 잘 적응할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의 생각과 반대로 준호는 착하고 예의바르며 축구를 무척 좋아하는 명랑한 아이였습니다. 다일어린이집이 오히려 편하고 집같다며 감사할 줄 아는 속 깊은 아이였습니다.

고등학교로 기술학교를 다니며 공부를 하고 그 시기에 처음 믿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늘 착하고 밝았지만 마음의 깊은 외로움과 슬픔을 내려놓을 하늘 아버지가 계심을 깊이 깨닫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때 한국의 큰아버지(다일공동체 최일도 목사님)께서 방문해 주셔서 백두산에서 세례를 받으며 신앙고백을 할 수 있었음이 너무 감사하고 잊을 수 없다고 지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깨달음에서 끝나지 않고 준호는 계속 아버지의 뜻을 물으며 원하시는 길을 가기를 소망했고 기술학교를 졸업한 후 도움의 손길 덕분에 심양의 찬양학교에서 2년동안 찬양사역자 훈련을 받으며 공부를 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추천을 받아 2년동안 중국 연태에서 관련된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훈춘으로 돌아와 아르바이트를 하며 틈틈이 다일어린이집의 동생들을 돌보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길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호는 공부를 아주 잘 하지도 않았고, 명문대학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어렵게 자랐지만 큰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 다. 그러나 늘 찬양을 통해 더욱 가까이 만났던 하늘 아버지를 향한 열망만은 누구보다 크고도 큼니다. 중학교 1학년... 중국 다일어린이집으로 불러주신 아버지! 그 분을 믿기에...

늘 막막한 순간마다 길을 열어주셨던 아버지께서 이끄시는대로 조금해하지 않고 지금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끄시는대로...

중국다일공동체 어린이집에서 식사 후 설거지를 하고 있는 준호.



I follow his lead

China Dail Community _ By Jun ho Choi

At China Dail nursery, common young children are bound to come there. But Junho who was a first year student of middle school came there.

When he was a child, his father died and after parting with his mother, he had lived with his aunt but she couldn't take him because of her remarriage. It was about the time when he was in adolescence. We were worried whether he could adapt in the new environment or not, but contrary to our concern, Junho was that person who is polite, fond of playing soccer, cheerful, and thankful. He is thoughtful in saying that Dail nursery is rather comfortable for me.

He attended a high school specialized in techniques and at that time, he started to believe in God first. That time was a period that he could realize that God was someone he can rely on by taking away his sorrow and loneliness. Also, at that time, Korea's big father (PastorChoi Ildo, Dail Community) visited there and this led him to get a baptism at Baekdusan and confess his faith. Until now he has said that it was unforgettable and grateful.

Not to end in enlightenment, Jun ho hopes to go the way that GOD wants him to go consistently after graduating from technique school, He studied as a training praise person for 2 years with God's help in Shim Yang's Worship school. He worked in relation with China Yantai by recommendation after graduating from school.

Now, He came back Hunchun and he is preparing

for the future by praying and having a part-time job and taking care of younger brothers in Dail nursery

Junho wasn't good at studying well and couldn't enter into a famous university. He didn't have a mind that he wanted to make a fortune, even though he grew up hard.

However, nobody has a more eager desire for God, whom he met by praising Him.

A first year student of middle school... God who called me to Dail nursery!

Since I believe in God, I am always walking not to hurry as He leads me to become better, whenever I am in pain.



프놈펜 밥퍼 수해복구 프로젝트

클·캄보디아 다일공동체_김학용 원장 mookanri@dail.org

프놈펜 밥퍼는 프놈펜 시내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빈민촌 언동마을에 위치해 있습니다.

2004년 프놈펜 도심 한가운데 있는 빈민촌에서 굶주린 아이들을 돕기 위해 캄보디아에서 처음 시작된 프놈펜 밥퍼는 2006년 도시빈민촌이 강제로 철거될 때 주민들과 함께 언동마을로 이주해서 지금까지 함께 살고 있습니다.



1 벽이 낡은 캄보디아 밥퍼센터. 2 더러운 물이 고였다 빠진 뒤 진흙으로 범벅된 밥퍼센터를 보고 있는 아이.



Cambodia Dail Community
Phnompenh Babfor

언동마을은 우기철만 되면 마을 대부분이 물에 잠기는 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 우기철에는 넘쳐나는 물 때문에 밥퍼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지대가 낮을 때는 물이 들어왔다가도 금새 빠지곤 했지만 작년부터는 주변 땅들에 복토를 하고 건물을 세우면서 밥퍼 센터는 상대적으로 너무 낮아져 비가 오기만 하면 물이 빠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몇일 전에는 아직 우기도 오지 않았는데 폭우가 내려서 주변의 물들이 센터로 스며들어 센터가 잠겼습니다. 5월말부터는 매일 비가 내리는 우기철인데 지금 당장 공사를 하지 않으면 밥퍼가 불가능합니다.

물이 고였다 빠진다 해도 더러운 물에 잠겨있던 센터의 위생상 큰 문제들이 생길까봐 여간 걱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년 겪는 물난리를 다시는 겪지 않으려면 근본적이고 확실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센터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복토작업과 지붕수리 그리고 배수작업을 꼭 해야만 됩니다.

이 모든 공사를 위해서는 복토작업과 배수작업, 낡은 벽면수리 10000달러가 필요합니다.

프놈펜 언동마을 빈민촌 아이들에게 우기철에도 깨끗한 센터에서 밥을 나눌 수 있도록 긴급 도움을 요청합니다.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후원하기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문의

홈페이지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42565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캄보디아다일공동체 김학용원장
855-78-708-080, 070-8220-3940
서울 02-2212-8004

www.dail.org

“유치원 후원천사가 되어주세요!”

글·필리핀다일공동체_이명현 원장 emhok@dail.org



이제 새로운 4기 유치원생들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얼마나 예쁘고 귀여운 아기 천사들이 찾아올지 궁금하네요.^^ 빈민촌에 위치한 필리핀 유치원은 전액 무상으로 운영이 됩니다. 단, 교복을 맞추거나 소풍 회비 정도만 자비로 부담하게 합니다. 최소한의 자기부담은 교육 효과를 위해서도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지난 번에 마닐라 동물원으로 소풍갔을 때, 회비가 없어서 못 간 아이들이 꽤 많았어요. 동네에서 맨날 지저분한 개나 고양이, 투계(싸움닭) 밖에 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라서 동물원 간다니까 너무너무 좋아했건만... 대부분의 큰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고, 겨우 7~8천원쯤 되는 입장료만 내도록 했는데 그 회비를 못내서 가지 못했던 거예요.

아아...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하긴 빈민촌에서 그 정도는 큰 돈이긴 하지요. 그래서 올해는 어떡하든 모든 아이들을 데리고 소풍가는 방법을 찾아야겠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자재도 보충해야겠고, 놀이방도 어떡하든 좀 만들어줘야겠고, 맛있는 간식도 더 줘야겠고 해서 올리는 부탁의 말씀...!

“우리 유치원 후원천사가 되어주세요!”

한달에 5만원씩!

30명의 후원천사를 기다립니다.

우리 유치원 안에 후원천사님의 이름과 사진을 걸고, 아이들에게 “얘들아, 이 분들이 너희를 위해 사랑을 보내주시는 천사님들이란다 ~~~” 소개하면서, 꿈과 희망을 키워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후원천사님들께는 아이들이 예쁘게 성장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첩과 ‘기쁨 가득한 보람’을 선물로 드릴게요.^^ 아이들 모습 보시러 오시면, 언제든지 WELCOME~~~~ 이구요.



Please be help of Dail Pre-school!

Philippines Dail Community _ By director. Myeung Hyun Lee

We are gathering 4th pre-schoolers with hope and wonder about as sweet and pretty as pre-schoolers come.

The Philippines Dail Pre-school located in a slum is free of charge. Only school shirts and outing fees are the only charge. Minimum fee is on the children's own account for educational purposes.

We once had a picnic to Manila where we had quite a lot of children who could not join the outing for lack of dues. It was so sad that they couldn't go when they were expecting to go to the zoo since the only animals they have seen in their life are dogs, cats, or cocks on the streets. We, Dail, paid most of the fees, but the \$7 picnic fee stopped them from being able to join the picnic.

Also... It was such a heart breaking experience. In fact, \$7 may be a big lot in the slum. So, I thought I would have to find a way for them this year! I need to equip teaching materials for the children, play room, and to be able to prepare delicious snacks...

For these reasons I beg you

**"To be an angel sponsor for our pre-schoolers!"
It's just \$50 for a year! We are waiting for 30 sponsors.**

We would gladly put your name and photo on the school wall and tell the children that you are the angels who loves and cares them. We dare want to build the dream and hope of the children.

For you, we will make a photo album of the children and give that to you with fruitful joy. You are always welcome to see the children!

필리핀 다일공동체 후원하기

필리핀 다일공동체

문의

홈페이지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4258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필리핀다일공동체 이명현원장
070-8220-3278, 63-927-560-7346
서울 02-2212-8004

www.dail.org

자랑스런 어머니

글·베트남 다일공동체 _이종원 원장 lplhome@dail.org

베트남다일공동체 밥퍼에 굉장히 반가운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한화그룹 충청지역봉사단과 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이 함께 베트남 다문화아동의 외갓집 방문을 지원하여 한국으로 시집온 베트남 며느리 12명과 자녀 12명이 외갓집인 베트남을 방문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가 배식을 하고 있다.



1 베트남 어머니가 밥퍼센터 이용자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고 있다. 2 식사를 마치고 택으로 돌아가는 분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외가를 방문하고 엄마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여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외가를 방문하는 것 뿐 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우리 사회의 미래 동력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현지 봉사활동 등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2014년 4월 외가방문팀이 먼 한국 그것도 대전에서 이른 새벽에 출발 하여 오후 늦게 도착한 호치민에서 제일 먼저 찾은 곳이 베트남다일공동체 밥퍼센터입니다. 오랜 시간 여정에 많이 지치고 힘이 드는데도 가난하고 험벗은 이웃들에게 한 끼의 식사를 대접하고자 모든 일정 중에 최우선으로 밥퍼 봉사에 참여한 것입니다.

베트남 엄마와 자녀들의 외갓집 방문을 반기는듯이 비가 내리고 밥퍼센터에서 식사하시는 분들도 한국으로 시집가서 살다가 아이들과 고국인 베트남을 방문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던 가족들을 만난 것처럼 반가이 맞아 주었습니다.

엄마와 아이들은 먼저 베트남다일공동체 사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조를 나눠서 일부는 식판에 밥과 국, 반찬을 놓은 후에, 식탁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 밥퍼센터 이용자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6살부터 11살 사이 어린 아이들이 처음에는 뜨거운 국물에 데일 것을 염려하여 엄마와 함께 음식을 전해주었는데 나중에는

6살짜리 아이 혼자서도 식판을 들고 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어린 아이들이 전해주는 음식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택으로 돌아가는 분들에게 한화그룹에서 지원해준 쌀 5kg짜리 120개(600kg)를 마당에 옮겨 놓고 모든 분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드렸습니다. 쌀 5KG 한 포대가 엄청 무거운 법도 한데 어린 아이들은 마냥 신나게 쌀을 나누고 봉사의 마지막 마무리로 엄마들은 설거지와 식탁을 닦고 아이들은 식탁과 의자를 차곡차곡 쌓아 제 자리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어디서 힘이 솟아나는지 모두들 피곤함도 잊은 듯 밝고 기쁜 마음으로 아주 신나게 봉사활동을 해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이주여성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앞으로는 이주여성들 덕분에 한국과 베트남과의 관계는 더욱 두터워질 것입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한화그룹 베트남법인 임팀장은 '밥퍼' 봉사활동을 통하여 어머니와 아이들이 밝고 즐겁게 일하는 것을 보며 마음이 잔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한국에 갈 때는 어떤 사연이 있어서 왔는지 모르지만 다시 고국 베트남에 와서 짧은 일정 중에도 불우한 이웃을 도울 수 있었고 자녀들에게 어머니가 봉사하는 모습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보람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어서 와서 도와달라고”

글·우간다다일공동체_김혜경 원장 gracekeong@dail.org



이 땅에 밥 굶는 이 없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밥퍼를 하고 있는 다일공동체는 중국, 미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네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해외분원을 설립하여 밥과 복음으로 생명을 살려내는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첫 번째 분원인 탄자니아 다일공동체를 설립하신 최일도 목사님은 아프리카의 굶주린 어린이들을 만나 본 이후에 그 아이들을 더욱 붙잡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던 중 아프리카의 두 번째 분원으로 '우간다'를 지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7월 29일부터 8월 6일까지 있을 제 4차 아프리카 다일비전트립팀(일명 : 아다사모)은 우간다에 제2의 아프리카 다일공동체를 설립할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4월 7일에 우간다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가장 한복판에 위치한 우간다는 유럽 열강들이 '아프리카의 진주'라고 일컬었을 정도로 아름답고 비옥한 땅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다는 빅토리아 호수를 끼고 케냐와 나란히 적도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지만, 지형적으로는 언덕이 많고 고도가 높아서 시원하고 살기 좋은 기후 조건으로 영국이 아주 탐내던 나라라고 합니다.

Doing food serving ministry with love of Christ until no one dies for hunger, Dail Community establish branches in China, U.S., Vietnam, Cambodia, Philippines, Nepal, and Tanzania, Africa. Dail does holy mission of saving lives by serving people with food and gospel ministry.

Rev. Il-do Choi, a founder of Tanzania Dail Community, the first branch in Africa continent, pointed out Uganda as a second branch country in Africa after he got heart of God into his mind when meeting with hungry children of Africa.

The Africa Dail Vision Trip Team (hereinafter 'ADaViT') is preparing the 4th Africa vision trip from 29 July through 6 August with hope and prayer that they could establish the second African Dail Community in Uganda. The first step of the preparation will be stanchied out onto Uganda on 7 April. Uganda, located in very middle of the Africa continent is such a beautiful and fertile land that European countries once called it as a 'pearl of the Africa.'

Uganda is located just below the equator parallel with Kenya next to the second biggest lake in the world, the Lake Victoria. England in its history so wanted to conquer Uganda as its cool and good climate weather and its high altitude that it has lots of slopes.



왼쪽부터 변용수·김혜경 선교사, 박종대 우간다대사, 이현신·변창재 선교사.

우간다의 역사를 들여다 보면 1889년 영국이 동아프리카 회사를 설립하여 우간다의 인접국 가인 케냐, 탕가니카(현재 탄자니아)와 함께 세 나라의 통화, 관세, 교통, 통신을 장악하여 동아프리카연방을 구성하여 통치하였습니다.

우간다는 1962년 10월에 독립하였고, 초대 대통령은 우간다 왕국의 무테사 2세였으나 쿠데타로 1971년부터 Idi Amin이 정권을 장악하여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대량 학살하여 전 세계를 경악케 하기도 하였지요. 현재는 무세베니 대통령이 1986년부터 지금까지 28년 동안이나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정치적으로 아픈 역사를 지니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부정부패가 심하기로 유명한 아프리카 중에서도 우간다는 최고의 수준을 자랑(?)할 만큼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나라라고 합니다.

한국의 기관으로는 천주교 재단의 모 단체가 최초로 5년 전에 NGO 설립을 하였다고 하는데 설립 과정이 무척 힘들었다는 고백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NGO들이 세워지면 국민들의 의식이 개혁되고 눈이 뜨이어 현 독재정권에 반기를 들게 될 것을 우려하여 정부 측에서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일공동체가 우간다에 세워지기까지 여러가지 많은 장애물과 난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반드시 세워지리라 확신하며 첫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습니다.



프레드목사와 성도들과 함께.

Looking into the history of Uganda, we could find that England in 1889 established the East Africa company and through this, governed Uganda with its neighbor countries including Kenya, Tanganyika (Tanzania) in its currency, tariff, transportation, and correspondence.

Uganda has become an independent country in October 1962. The first president of the independent Uganda was II Mutesa however, since 1971 Uganda was dominated by Idi Amin who is notorious for slaughtering its opposing party which startling the world. The sadness is found on its political history that current president Museveni has seized power for 28 years since 1986 until now. African countries are infamous for its corruptive politics and Uganda is the top among them that there is a saying that there is nothing possible or impossible in Uganda.

We had a story of a Roman Catholic Church supported organization which established a NGO for the first time in Uganda. As long as we know, it was so hard in the Uganda situation. It was because Uganda government did not want to accept such NGO system for it might be eye opening experience for the Uganda people that it may lead the people to reform the country and to against Uganda dictatorial government. We stanch out our first step onto Uganda believing that the Dail Community would firmly be established in Uganda if it is God's will there would be many hustles and difficulties though.



반다 1지역 체어맨(왼쪽)과 교회목사(오른쪽), 김혜경 선교사 부부.

하지만 연약한 아기 걸음마이기에 두렵고 떨리기도 한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우간다 다일공동체가 제2의 아프리카 분원으로 세워지기까지 후원천사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가 꼭 필요한 때입니다. 빈민촌, 난민촌 새까만 피부의 어린이들의 그 천진난만 하고 해맑은 미소가 잠시도 마음자리에서 떠나질 않고 나를 재촉하는 듯 합니다.

“어서와서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이 머무는 우간다 땅에 다일공동체가 설 수 있도록 눈물로 “종자씨”를 심으실 개척자들을 찾습니다. 어디 계신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 126:5-6)

We admit that we are somewhat afraid of having our first step that we would be like a baby NGO in Uganda. Now it is the time that we need your love and prayer until Uganda Dail Community is built as a second African branch. I keep feeling in my heart that the innocent and novel smiling of dark skinned children from poor refugee village urges me that I need to hurry up in doing this ministry.

We are looking for pioneers who will plant the seed with the tears so the Dail Community could firmly stand up in Uganda where the tears of God and the heart of God stay. Where are you, our supporters?

“Those who sow with tears will reap with songs of joy. Those who go out weeping, carrying seed to sow, will return with songs of joy, carrying sheaves with them.” (Psalm 126:5-6)

우간다 다일공동체 후원하기

우간다 후원계좌 국민 467701-01-231436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문의 우간다다일공동체 김혜경원장 070-4099-8686 255-654-982-703
홈페이지 www.dail.org

Bank Account 467701-01-231436
Bank KOOKMIN BANK.
Account holder Social Welfare Institute, Dail Welfare Foundation

해외 아동 결연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세요

“친구들이 부러워요.”

탄자니아 다레살렘 채석장 마을에 살고있는 10살 소녀 어린나이에 병든 어머니와 살고 있는 레헤마...



레헤마의 마음에 꿈과 희망이 싹트고 있습니다.

성장기 소녀지만 음식이 부족해서 레헤마는 야위어 있습니다.

레헤마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건 어머니가 언니를 낳은 후 출산 후유증으로 청력을 잃고 디스크까지 앓게 되면서 하반신 마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뿐인 언니는 생계유지를 위해서 남의 집에서 허드렛일을 하며 파출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엄마와 함께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얘기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스스로 많은 일을 해내야 하는 10살 소녀 레헤마에게는 이 외롭고 슬픈 삶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겁기만 합니다. 그러던 레헤마가 탄자니아의 밤퍼와 인연을 맺게 되면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고 레헤마의 마음속에도 한줄기 빛이 스며들 듯 세상에 대한 믿음과 삶에 대한 희망이 자라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레헤마와 다레살렘 채석장 마을의 아이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1:1 아동결연 후원자가 되시면?

- ▶ 아동소개카드
- ▶ 아동자필편지
- ▶ 아동성장보고서 성탄카드
- ▶ 소식지
- ▶ 기부금영수증

후원안내

전화 02-2212-8004
팩스 02-2243-8005
홈페이지 www.dail.org



내 생애 마지막 여행

글·작은천국_박순혜 대리 soon@dail.org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이 서울시로부터 수탁 운영하는 노숙인요양시설(쉼터) '다일작은천국'은 이 땅의 가장 외롭고 쓸쓸하고 소외된 분들이 길거리에서 생을 마감하지 않고 그 마지막 삶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합니다.



2012년 밥퍼효도관광에서 딸기를 따고 환하게 웃고 있는 다일작은천국의 어르신들.

현재 다일작은천국에는 총 38명의 입소자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그 중 암환자를 비롯하여 중증의 질환을 가진 분이 70%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1년 5월 개소 후 작은천국의 입소자 어르신들은 자체적으로 여행이나 나들이를 가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제주도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고 여행을 가고는 싶지만 몸이 불편하고 돈이 없어서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죽기 전에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는 것이 마지막 소원이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여행을 다녀 오신다면 남아있는 삶에 대한 준비의 시간을 가지고 의지와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단조로운 일상을 벗어나 자연을 벗삼아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부하기

사랑의 열매 행복주식거래소

<http://happyexchange.chest.or.kr>

▶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기부하기 눌러주세요.
기부방법을 선택해주시고, 금액을 선택해주세요.

문의전화 02-2212-8004

02-2213-8004

홈페이지 www.dail.org

노란 리본에 마음을 담아



글·밥퍼나눔운동본부_백선기 간사 dbdnl@dail.org



지난달 4월 30일 청량리 밥퍼 나눔운동본부에서 세월호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가족들을 위로하는 노란 리본 달기 캠페인이 800여명의 밥상공동체 어르신들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다일복지재단 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참석한 사람들 모두 밥퍼 앞마당에서 세월호 사고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애도하는 시간을 가진 뒤, 울타리에 직접 리본을 달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노란 리본을 다는 한 어르신의 떨리는 손에서 희생자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깊이 전달되어 더욱 뭉클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리본을 달고 돌아가시는 어르신의 인터뷰에서 “참으로 애속한 일이에요. 전 국민이 슬퍼하는 이때에 힘도 돈도 없어 직접 찾아가지 못하는 우리도 동참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요.”라고 말하며, 자리를 마련해준 다일복지재단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7년을 하루같이

7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편지를 쓰고 2,555통의 고백을 뜻과 정성 다해 부쳐 독자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감동 휴먼 스토리



금년 7월부터 전국 유명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공부하기 전 기도문 Prayer Before Studying

형언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
당신께서는 빛과 지혜의 원천이시고
모든 것의 시작이라 불리십니다.

당신의 찬란한 빛으로 제 지성의 어둠을 밝히시어 타
고난 죄와 무지의 두 암흑을 몰아내 주소서.

당신께서는 어린이들의 입에서도 찬양을 자아내시니,
제 혀가 당신의 지혜를 말하고,
제 입술이 당신 축복의 은총을 쏟아내게 하소서.

제게 이해의 명석함을,
보유할 수 있는 역량을,
해석에서는 정확함을,
말을 할 때는 충만한 은총을 주소서.

당신께서는 제 작품을 시작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중에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마칠 때 완성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이시고 사람이시며,
영원히 살아계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성 토마스 아퀴나스
by St. Thomas Aquinas

Ineffable Creator,
You are proclaimed
the true font of light and wisdom,
and the primal origin
raised high beyond all things.

Pour forth a ray of Your brightness
into the darkened places of my mind;
disperse from my soul the twofold darkness
into which I was born:
sin and ignorance.

You make eloquent the tongues of infants.
Refine my speech and pour forth upon my lips
the goodness of Your blessing.

Grant to me a sharp sense of understanding,
capacity to remember,

skill in learning,
subtlety to interpret,
and eloquence in speech.

May You guide the beginning of my work,
direct its progress,
and bring it to completion.

You Who are true God and true Man,
Who live and reign,
world without end.

I ask this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Amen.

시 제공- 최별(Byeol Ellie Choi)



“다일평생천사후원이
되어주세요”

www.dail.org / 02 2212 8004 / 담당자 정민경대리

다일평생천사후원이 되어주신
후원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사랑의 벽돌을
다일천사병원 1층에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빈곳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빈곳들이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주시고 나눔의 따뜻한
소식들을 주위에 많이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계 곳곳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 온 맘과 정성 다해
말로 뛰는 다일이 되겠습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이사회 귀중

2014년 3월 10일

본 감사인은 첨부된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의 2013년 12월 31일과 2012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운영성과표 및 순자산변동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재단의 이사장에게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본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본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대하게 왜곡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상의 금액과 공시내용을 뒷받침하는 감사 증거에 대하여 시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재단이 적용한 회계원칙과 중요한 회계 추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가 감사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감사인은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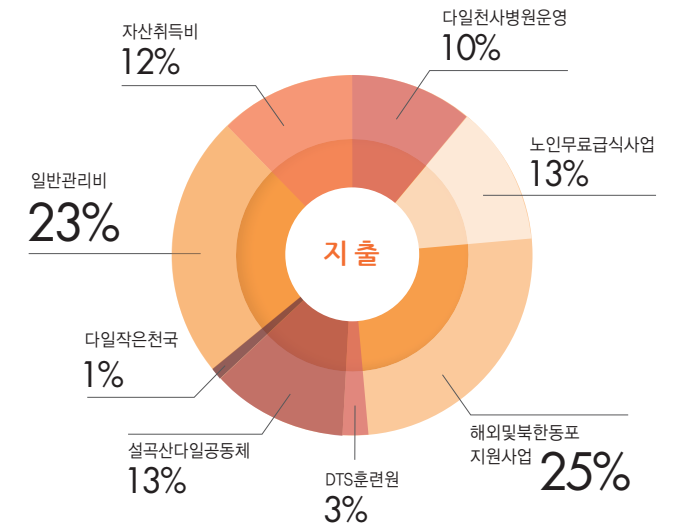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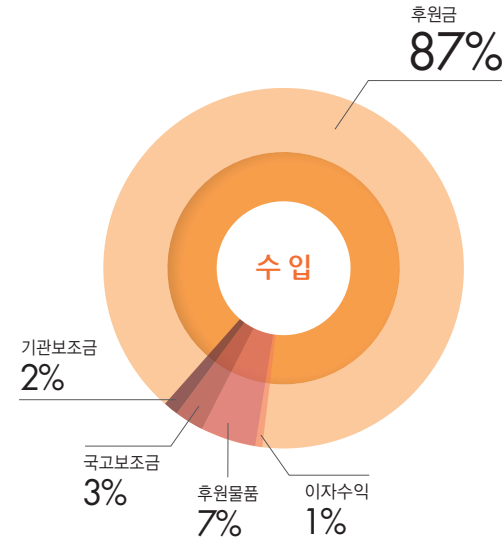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재무제표는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의 2013년 12월 31일과 2012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운영성과 그리고 순자산의 변동 내용을 재단의 정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한국의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지침 및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삼 화 회 계 법 인
대표이사 석완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삼화회계법인은 Moore Stephens International Limited 의 한국 내 회원사입니다.
Moore Stephens International Limited 의 회원사들은 약 98 개 국가에 각각 독립된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



(단위: 천원)

항목	2013 예산	2013 결산	
수증금	이월금	857,551	857,551
	금년도 후원금	4,148,742	4,301,615
	후원물품	0	357,064
보조금	국고보조금	146,037	146,224
	기관보조금 (동대문구청, 문화관광체육부)	86,895	107,445
기타 수입	이자수익	2,001	23,201
	잡이익	0	76
총 계	5,241,227	5,793,176	

(단위: 천원)

항목	2013 예산	2013 결산	
목적 사업비	다일천사병원운영	452,296	447,939
	노인무료급식사업	549,080	593,055
	재가노인지원사업 (노인무료급식사업포함)	5,887	
	해외및북한동포지원사업	1,004,049	1,156,210
	DTS훈련원	94,605	109,978
	설곡산다일공동체 (자연치유센터 포함)	433,122	575,211
	다일작은천국	56,786	61,179
운영비	기타부대사업 (장학금지원사업)	14,576	16,447
	일반관리비	933,475	1,063,209
이월금	자산취득비	567,173	546,360
	이월금(기본재산 포함)	1,130,178	1,223,588
총 계	5,241,227	5,793,176	



밥퍼는 000이다

밥퍼는 Facebook이다 국립외교원 **채유승**
 밥퍼는 활자가 아닌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페이스북이다. 굶주린 노숙인을 돌보아야 한다고 공부한 의무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face to face로 실천을 행하는 것이다. 페이스북이 개인과 개인을 연결하여,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친구를 만들어 가듯이, 밥퍼도 점차 전 세계로 도움의 장을 넓혀가고 있다. 밥퍼는 여러분의 '친구추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밥퍼는 웃음이다 외교부 **권오정**
 호기심에 와 봤는데 왜 봉사를 하는지 알게 되었다. 힘들어서 어깨를 두드려보다가도 함께 봉사하는 분들과 웃으면서 시간을 금방 보낼 수 있었다. 한 번의 경험이 앞으로도 주옥 이루어져서 이 세상 다른 이들에게 따뜻한 삶의 온기가 되기를 희망해본다.

밥퍼는 사랑의 병원이다 한국벤처투자 **정유신**
 아침에 올 때만 해도 어제 일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메말라 있었는데, 갈 때쯤이니 마음이 훈훈해지고 몸이 따뜻해져 혈액순환도 잘되는 것 같다. 한층 건강해진 느낌이다. 밥퍼는 오신 분들의 아픈 몸과 마음을 섬길 뿐 아니라 봉사자들도 치료하는 사랑의 병원이다.

밥퍼는 한류다 개인봉사자 **성주연**
 최일도 목사님이 청량리역에서 시작한 밥퍼가 전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것이 한류와 같다. 더욱더 세계적으로 뻗어나가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밥 굶는 이가 없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난 오늘이 처음이었지만 꾸준히 와서 그 꿈을 실현시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야겠다.

밥퍼는 마이클 잭슨이다 동아원 **최인**
 Heal the world!! Make it a better place!! 더 좋은 세상 만들어 주세요. 아프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퍼는 희망인 것 같네요. 파이팅! 밥퍼!

밥퍼는 희망이다 개인봉사자 **구예나**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또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희망을 심어 주는 것 같다. 이 한 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다. 삶의 끈을 놓을 수도 있는 분들이 지금 한 끼를 먹음으로써 희망으로, 오늘 그리고 내일을 힘

껏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밥퍼는 흙이다 한국교직원공제회 **강인모**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유지시켜주는 큰 힘이 되는 밥퍼! 그 따뜻한 마음에 놀라고, 함께 해주시는 분들의 열정에 놀랍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지탱하는 기쁜 흙이 되어주세요.

밥퍼는 진화한다 현대상선 **배민지**
 밥퍼를 온지 년으로 4년째! 올 때마다 더 새롭고 발전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뜻을 잘 세상에 전달할지에 대한 고민의 결과가 아닐까요. 앞으로 더 멋져지는 밥퍼! 기대할게요.

밥퍼는 이웃이다 개인봉사자 **왕다영**
 이웃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지만 한 번 다가가지 않으면 인사조차 하지 않는 사이가 되고, 다가가면 누구보다 친하고 도움되고 기분 좋은 존재이다. 이처럼 '밥퍼' 또는 '봉사'란 생각만 하면 행할 수 없지만 한 번 실행하게 되면 기쁘고 그 다음 두 번, 세 번은 쉽기 때문이다.

밥퍼는 행복이다 개인봉사자 **한지혜**
 몸을 너무 힘들지만, 마음은 뿌듯한 나눔이다. 화려한 밥상은 아닐지 모르지만, 밥 한 끼가 가져다주는 행복이 이렇게 큰지 몰랐다.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식사를 준비하는 봉사자들도, 이 한 번의 나눔이 가지고 오는 행복이 인생에 오래오래 기억되는 '행복'의 한 순간이 아닐까 싶다.

밥퍼는 오아시스다 봄온아카데미 **한성은**
 펑펑하고 각박한 세상 속에서 쉼터와 마실 것, 먹을 것을 제공하는! 이 사막 같은 시대에 진정한 오아시스의 역할을 '밥퍼'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한 사역을 담당하는 밥퍼! 다음에도 꼭 오겠습니다.

밥퍼는 희망이다 천안함재단 **원용이**
 우리 유족들을 소개하는데 자꾸만 눈물이 난다. 딱 한 덩어리의 행복과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며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는다. 어느새 나는 딱 나누어 주는 것을 즐기고 있었다. 나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음에 감사한다. 앞으로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빌어본다.

나는 행복한 자원봉사자

공무원연금공단



지속적인 사랑으로 밥퍼를 찾아주시는 공무원연금공단 여러분! 우리를 봉사의 꽃이라 불러주시지만, 여러분들이 진정한 봉사의 꽃입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섬기는 밥퍼가 되겠습니다.

동아원그룹



회사 창립 이래 첫 봉사활동을 우리 밥퍼와 함께 해주신 동아원그룹 직원들입니다. 모두들 남을 돕는다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보람된 일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다며, 귀가하셨습니다. 계속된 관심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찾아주세요!

크룩스코리아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나눔과 섬김에 최선을 다하는 크룩스코리아입니다.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힘든 밥퍼 봉사임에도 악어처럼 힘찬 모습으로 바빠 움직이는 크룩스코리아 여러분! 환한 웃음으로 어르신들 꼭 잡는 두손, 우리가 배워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KB국민카드



KB국민카드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귀한 발걸음과 더불어 어르신들에게 뜻깊은 나눔을 주시니 감동에 감동을 더하는 날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주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밝게 웃어주셔서 밥퍼는 더욱 더 힘이 납니다. KB 국민카드가 최고야!

외환은행나눔재단



밥퍼의 친구 외환은행나눔재단 임직원 가족입니다. 일편단심으로 우리를 찾아와주시는 그들이 있어 더욱 윤기나는 밥퍼가 아닌가 합니다. 밥퍼를 삶의 일부분이라 말씀해주시는 것처럼 우리 밥퍼와 외환은행나눔재단은 언제나 함께합니다.

한국벤처투자



정기적으로 봉사해주시는 한국벤처투자 직원 여러분입니다. 찾아주실 때마다 귀한 손길로 열심히 봉사하고 가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 밥퍼가 더욱 빛이 납니다. 또 찾아와 주실까요?

동부메탈



따뜻한 세상 만들기 위해 힘써주시는 동부메탈 여러분입니다. 봉사는 물론이거니와 따뜻한 후원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많은 이들을 섬기고 대접하고 싶었던 그들의 마음 씀씀이에 감동이 느껴집니다. 우리 밥퍼가 더 앞서서 행동하겠습니다.

천안함재단



아주 뜻깊고 귀한 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천안함 침몰사건 4주기에 맞춰 유가족 여러분들이 정성으로 어르신들을 대접하고 나눔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밥퍼의 든든한 동반자이신 명예본부장 조용근 회장님과 함께 다녀가시니 밥퍼에 따뜻한 감동의 물결이 흐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상선



밥퍼의 오랜 친구지요! 현대상선 임직원 여러분입니다. 오랜만에 찾아와주셨는데도 바로 어제 봉사하신 것처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그들에게 저희가 한 수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주시길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대상선이 최고야!

신규후원자 4월 1일~27일

(주)데오마이,calling,강경림,강금옥,강미라,강사세,강순삼,경희유치원(꿈초롱클럽),고혜영,곽성우,곽세현,구본석,구본,구승희,권혁용,김강옥,김금선,김덕봉,김도윤,김동철,김동철,김명신,김미성,김선화,김선희,김성순,김성희,김세윤,김수년,김순복,김영무,김옥순,김원석,김유진,김인식,김인자,김재호,김종채,김종환,김중현,김지훈,김진자,김찬우,김태형,김하영,김학균,김한서,김현영,김혜진,다일공동체(모),다일나눔후원-한예찬,다일복지,데오스중고등학교,동원교회중고등부,두길남,류선영,문정일,미군부대후원,박득지,박득지,박수진,박종도,박하승,박현배,박현호,박혜숙,박혜정,박희임,밥퍼나눔운동본부직원일동,버나드,봉순복,부활절헌금/김영선,서경애,서영희,서울아산병원점,송태창,송현,신혜련,심소연,안교천,안미원,안시영,안지혜,안형준(박승철헤어스튜디오),알지에이리인슈어런스,양승호,양욱(양성진),오경선,오광윤,오평석,유대연,유성룡,유재숙,유재호,윤동현,윤우,윤윤선,윤정선,윤해인,이대기,이명배,이명주,이문재,이미경,이미숙,이병래,이설희,이수자,이영석,이우범,이은경,이인옥,이정목,이주호,이혜진,임재원,장기업,장왕소,재단법인 천안함재단,정문기,정병선,정상술,정일찬,정태심,정현수,정혜숙,조명혜,조양자,지승은,진양현차은주,최시영,최영한,최진수,표현자,하기정,하늘아래준기세상,하영준,한승훈,한웅,한창희,한태희,홍수복,홍재민,황경진,황순일,황영주

밥퍼나눔운동본부 3월 11일~4월 10일

후원자 강금옥,강순삼,권혁용,길광희,김옥순,김종환,김중현,김찬우,박현호,박혜정,봉순복,서병구,안시영,안지혜,이미경,이병래,이인옥,이재완,이정국,임재원,장기업,장혜숙,정병선,정상술,정유신,정일찬,정현수,진양현,최인

3월 11일~4월 10일

밥퍼나눔운동 03월 후원금 명단 강은국, 공무원연금공단,광현교회,구미목장교회,국순애,권혜진,김은정,김채홍,박정은,박종일,백송희,사랑나눔행복나눔모임,서울석유,서호진,소망봉사팀,송정염산교회(최숙목사),신민숙,윤현숙,이영기,이영희,이종욱,장문성,정신남,정영희, ㈜에스지엔지,최주영,한국벤처투자,홍경화,황재영

3월 11일~4월 11일

밥퍼 후원물품 (주) 영우디지털 쌀 400kg, ,153농산 훈제치킨 580마리, 국립외교원 쌀20kg, 김영월 쌀 40kg, 동대문구청 황태찜 900kg · 청소용품, 드림재단 빵3200개, 마포소방서 의용소방대 쌀200kg, 무명 쌀30kg, 백경희 쌀 1250kg, 뷰티플마인드 쌀240kg, 사조 간풍기 220kg, 서울우유 1008개, 윤청자 쌀 40kg, 윤희미트 양념주물럭180kg, 정순덕 된장 · 장아찌 20L, 친환경두채류사업단 콩나물 20봉, 크록스코리아 신발45켤레 · 쌀200kg

캄보디아다일공동체 3월 21일~4월 25일

군산시청 글로벌체험자, 김동순(김정선노래교실), 김동열 가족(서울 메트로 신답선교회 명성교회), 김정선노래교실, 김순복 권사(김정선노래교실), 김특선/김연미, 대박식당, 서병철/선하/서재진, 신한은행, 심기윤/김진하, 양자선교회(허에스터 목사), 윤찬호/성호, 익산샘물교회(이중관 목사), 일신교회, 전상훈(하나투어), 기쁨이있는교회, 충북체천명품여행모임, 카도, 포항 구룡포읍 이장단협의회, 하미라, 황성택/이승리/황재호/황윤찬

베트남다일공동체 3월 22일~4월 15일

POS-SEA (200만동),THANH CONG (300만동),THANH CONG (650만동),기업은행 (3,155,000동),김 찬(\$500),나할(250만동),나할 (250만동), 다비CJ (200만동),닥터 카(300만동),대우인터내셔널 (300만동), 데오스고등학교 (\$200, 1,416,000동), 데오스고등학교 (\$300), 데오스고등학교(\$2,057.66),롯데리아 (420만동), 무 명(198만원),베가스 (400만동),보민건설(200만동),사이공한인연합교회 (300만동), 아리랑화학 (210만동),아산상선 (421만동)MAX VINA (300만동), 우리은행 (300만원),윤영애(\$ 100),이중환(120만동),천국을 나타내는 교회 (300만동), 최기흠,최해인,최해린,배준익,배진영,배서진,김승민,김승준 (100만동), 포스코베트남 (600만동) ,한화,트래비스 (\$200, 1,000만동)

중국다일공동체 3월 22일~4월 11일

권윤경, 김성재(Obey & Praise), 림예화+한원철, 박려나, 애심떡집, 양자00회(대표 허에스터), 이동경(옥수수국수), 이숙의(미국 시카고)

다일작은천국

4월만사후원금 강미라,곽세현,김동철,김영무,김인식,김인자,김지운,김진자,김현영,두길남,박순혜,성완용,양승호,오광윤,윤우,윤동현,윤정선,이문재,이정보,이종락,주운석,지승은,최미숙,하영준

후원물품(4월 18일~22일) 김양국(입소자형님) -양식곡10kg,게스트하우스 -남자상의 50개, 박문정-세제 및 휴지 생필품,서울시노숙인시설협회-멀티비타민 30병, 익명할머니-부활절계란10판

탄자니아다일공동체 필리핀 다일공동체 3월 22일~4월 11일

4. 26 옷, 크레용, 사탕 후원(임성미 님), \$100 (Nancy) **현지후원금** 해피드림교회, 이명현

다일천사병원

후원의약품 4.18 어린이의약품 지원본부(한미약품 2종)
4.28 동국제약 고�혈압 · 당뇨약외2종

네팔다일공동체 3월 24일~4월 26일

Actionaid, 김광숙, 김소형, 김혜란, 느헤미야팀, 다일비전트립, 무명, 박완수, 박종원, 버비파, 부먼팀세나가족비스누, 송누가, 신수영, 이숙자, 정진영(드림미션), 주선애, 지태다일유치원학부모일동, 처음처럼, 최희철/김은영, 황혜정,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ARS 060-708-1588

다일비전(Vision)

중·장기적인 다일 비전을 위한 후원

- 다일나눔후원(1구좌 1만원) 구좌
- 다일평생천사회원(1구좌 1004만원)
- 다일특별후원
(오천만원이상 후원하는 스페셜멤버십)

국민은행 010-01-0619-487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무료급식(Feeding)

밥퍼나눔운동(국내외 무료급식사업)을 위한 후원

- 밥퍼나눔 정기후원(1구좌 1만원부터)
- 밥퍼1일배식비후원(1구좌 200만원)

국민은행 010901-04-03758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전인치유(Healing)

다일천사병원, 다일작은천국, 다일자연치유 센터 운영과 의료지원사업을 위한 후원

- 다일천사회원(1구좌 100만원)
- 다일만사회원(1구좌 1만원)
- 다일작은천국(1구좌 1만원)

국민은행 010-01-0975-87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해외 1:1 아동결연(Teaching)

해외아동과 1:1결연을 통해 아이들의 꿈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해외아동 1:1 결연을 하시면 결연아동소개서와 사진을 보내드립니다.

- 해외아동결연 (1명 기준: 월3만원)

* 아동의 국가는 필요한 곳부터 먼저 선정되어 결연됩니다.

해외분원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캄보디아씨엠립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142565
캄보디아프놈펜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142578
베트남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142594
필리핀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142581
중국 다일공동체	기업은행 017-033086-01-021
네팔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157448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233964

미주지역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국내후원계좌	국민은행 467701-01-053115
미주다일공동체 후원문의	Tel. 1-770-813-0899 Fax. 1-770-813-0133

DAIL Community of USA
P.O BOX 337 Suwanee, GA 30024-033

다일복지재단 후원방법 안내

1. CMS(자동이체)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 주시거나 다일복지재단 (02-2212-8004)으로 전화주시면 CMS신청이 가능합니다.

2. www.dail.org에 접속하시면

신용카드 및 다양한 방법으로 다일공동체의 사역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후원금은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문의 TEL. 02-2212-8004
FAX. 02-2212-8032

착한소비 행복한 나눔

사랑의 자동차 보험

다일공동체를 통해 사랑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시면, 수익금의 일부가 다일공동체의 나눔과 섬김의 사역에 후원됩니다. 문의) 02-2212-8004

행복나눔 참여

천사가게, 천사기업,
천사교회, 천사단체

가게 혹은 기업, 교회, 단체에서 매월 10만원의 정기후원을 통해 다일공동체의 나눔과 섬김의 사역에 함께합니다.

국민은행 010-01-0619-487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이 땅에 밥 굶는 이
없을 때 까지”

밥퍼밴드 1개 5,000원으로

지구촌 빈곤 아동 20명의 한 끼를 배불리 먹일 수 있습니다

“HERE AND NOW”

지금 이 순간 수많은 아이들이 여러분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밥퍼밴드 1개 5,000원



문의

서울다일교회 02.2243.8004 / 임정순 전도사 010.8862.0834

밥퍼나눔운동본부 02.2214.0365 / 부분부장 이지현 목사 010.4205.5004

www.dail.org

다일영성수련

1단계

156기 6월 23일(월) ~ 6월 27일(금)

157기 7월 7일(월) ~ 7월 11일(금)

2단계

45기 7월 21일(월) ~ 7월 25일(금)

3단계

17기 7월 28일(월) ~ 8월 2일(토)

미주 1단계

16기 5월 26일(월) ~ 5월 30일(토)

시카고(문의: 630.248.2193)

대표 | 최일도 목사
서울다일교회 담임
다일공동체 대표
다일복지재단 이사장
한동대학교 겸임 교수



“내 인생에서 못해본 여행이 딱 두가지 있다. 신혼여행과 우주여행. 신혼여행이 얼마나 멋진지는 모르지만 이번에 다일공동체에서 경험한 영적우주여행, 1단계 아름다운 세상찾기라는 영성수련은 여태까지 내가 한 여행중에서 가장 멋지고 황홀한 여행이었다.”

-한비야(전 월드컵전 구호팀장)



“4박 5일의 시간이 제게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다 줬어요. 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게 됐어요. 창조의 질서가 보여서 참 신기하고 놀라웠죠. 사물을 보는 힘, 잔치를 아는 힘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온몸으로 느낀 것 같아요. 그 잔치가 보이니까 제 재재와 예수님이 보였던 것 같아요.”

-류승완(영화감독)

설곡산다일공동체 T: 031)585-2004

www.dail.org H: 010)7756-8004

영성수련(대관 및 개인피정) 신청은 수련 시작 일주일 전 선착순 마감하며, 수련비 입금(농협 355-0022-4654-93 예금주:다일공동체)으로 등록 완료됩니다. 영성수련은 한 달 전에 입금하시면 5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밥짓는 시인,
최일도 목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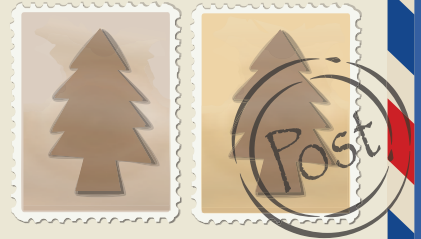
날마다
부치는
행복편지와 함께
벗님들과 우정과 사랑과 희망을
진솔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
·
·

시인목사
서울다일교회 담임
최일도 올림

Facebook
페이지에서 기다립니다!!



최일도 목사의 행복편지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choiildoletter>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더 많은精彩内容 다일공동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일공동체 홈페이지
dail.org



서울다일교회 홈페이지
s-dail.org



다일공동체 페이스북
facebook.com/dailcommunity



다일공동체 블로그
dail1004.tistory.com



다일공동체의 홈페이지, 페이스북, 블로그를 통해 다일공동체의 새소식을 한발 빠르게 접하실 수 있고
서울다일교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최일도 목사님의 매 주일 설교 말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